

팔리는 브랜드, 문화에 초점을 맞춰라

브랜드는 어떻게 아이콘이 되는가

더글라스 B. 홀트 지음, 윤덕환 옮김

다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코카콜라, 나이키, 버드와이저, 스타벅스... 그렇다. 오랜 시간 고객들에게 각인된 브랜드들이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브랜드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브랜드들이 명멸한다. 어떤 브랜드는 시간과 무관하게 영향력이 여전하다. 그렇다면 어떤 브랜드는 역사가 되고 어떤 브랜드는 역사 뒤안길로 사라질까?



BTS가 한류라는 상품을 넘어 전 세계 Z세대 문화 아이콘이 된 것은 문화적 콘텐츠 전략과 무관치 않다.

능보다는 진정한 문화적 본능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원리를 밝히고 이 원리를 이용하여 아이코닉 브랜드를 형성할 수 있는 전략적 언어"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가장 성공적인 브랜드가 '아이코닉 브랜드' (iconic brand)다. 문화 아이콘이 된 브랜드라는 뜻의 아이코닉 브랜드를 대표하는 것은 'BTS'라 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이 한류라는 상품을 넘어 전 세계 Z세대 문화 아이콘이 된 것은 문화적 콘텐츠 전략과 무관치 않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이상을 형상화한 브랜드, 또는 되고 싶은 사람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브랜드에 열광한다.

창의성이 대중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일 필요할까? 저자는 정치와 사회, 문화적인 맥락 속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대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창의성은 실패로 귀결될 뿐이다. 저자는 폭스바겐

이 '핑크 스몰' (작게 생각하라) 이후 사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더 극단적인 창의성을 강조해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본다.

또한 저자는 브랜드는 국가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지지자를 끌어 모으는 플랫폼 역할로 정의한다. 소비자는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자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기 때문이다. 시민적 역할의 연장선에서 소비자 역할이 존재하고,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감응하고 고민을 하기 마련이다. '사회적 맥락 속에서의 소비'는 투표일 수도, 항의 표시일 수도, 대리적 정치 행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으로 저자는 "한 브랜드가 빠른 상업적 이익을 위해 신화 추종자들의 충성도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브랜드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효과는 사라진다"고 경고한다.

〈한국경제신문·1만9000원〉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노동정책의 배신=노동법 관련 저서 100여권을 쓴 저술가이자 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인 김명수 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의 면모를 소개하면서 약점과 한계를 날카롭게 분석한다. 저자는 청년 일자리 정책, 비정규직, 최저임금, 주52시간 상한제, 신산업 정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현실에 적용되지 못하는 정책의 속사정과 해법을 제시한다. 〈모아북스·2만2000원〉



▲다정한 나의 오일파스텔=일상 속 다양한 풍경과 특별한 순간을 담아낸 그림 콘텐츠로 사랑을 받은 유튜브 골드송의 오일파스텔과 30점과 감각적인 노하우를 담은 튜토리얼을 소개한다. 초보부터 마스터까지, 단계별로 하나씩 그림을 그리며 아름다운 풍경을 남기는 것은 물론, 나에게 집중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갖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한다. 〈위즈덤하우스·1만6000원〉



있다고 전한다. 〈시공사·1만6000원〉

▲혁신고등학교, 무엇이 다른가?=경기 교육연구원이 기획하고 김현자 경기도 교육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호 갈매고등학교 교사 등 6명의 필진이 참여했다. 2010년대 초반 혁신학교로 지정된 경기도 내 8개 고등학교 졸업생 24명을 3차에 걸쳐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혁신고등학교의 모습을 돌아보며, 발전 방향에 대한 제안 등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살림터·1만1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Wild : 고양이와 함께한 날의 기억=하루 동안 고양이를 돌보게 된 아이와 할아버지. 둘은 고양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보고 애쓰지만 고양이는 제멋대로 뒹굴며 버리고 만다. 'RAIN 비 내리는 날' 등을 펴낸 저자 샘 어서는 달아난 고양이 뒤를 쫓던 아이와 할아버지를 통해 현실과 환상을 넘나들며 예상치 못한 짜릿한 모험의 세계를 선사한다. 〈주니어RHK·1만3000원〉

▲나의 작은 새=박윤정 작가의 첫 그림책. 다양한 기법으로 만들어진 자수 작품이 정서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선사한다. 마당에 화분을 놓아두었는데, 어느 날 새가 찾아왔다. 아침이 되면 오는 새를 보려

고 화분을 살피는 시간도 늘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새가 오지 않는다. 그래도 계절은 바뀌고 풍경은 변한다. 작가는 주변의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라고 전한다. 〈반달·1만8000원〉

▲두 눈이 말뚱말뚱=잠자리에 누운 동물들이 한 마리씩 침대에서 기어 나와 어디론가 슬금슬금 사라진다. 이 늦은 밤에 동물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자동차 타는 여우'로 2020년 화이트 레이블 상을 수상한 작가 수잔네 슈트러서가 잠잘 시간이 되었는데도 잠들지 못하고 두 눈은 말뚱말뚱 뜨고서 자꾸만 딴 짓을 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여러 동물에 빗대어 그렸다. 〈푸른숲주니어·1만800원〉

흑인 청년의 백악관 입성서 대통령 4년 결단의 순간들

약속의 땅

버락 오바마 지음, 노승영 옮김



임기가 끝난 직후 아내 미셸과 함께 마지막으로 에어포스 원(대통령 전용기)을 타고 서부로 날아가 휴가를 마친 그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8년간의 백악관 시절을 비롯해 섬 없이 달려온 인생 여정을 정리하는 책이었다. '우리가 대변하는 모든 가치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인물이 후임으로 당선될' 놀라운 상황에서 그는 공직에 몸담은 기간의 일들을 솔직하게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미국 제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자서전 '약속의 땅(A Promised Land)'이 나왔다. 미국에서 지난해 11월 출간된 책은 첫날에만 90만부가 판매됐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600만부 판매고를 기록했다. 이미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 (330만부), '담대한 희망' (420만

부) 등을 통해 깊은 인상을 남긴 그의 이번 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대통령 회고록, 역대 최고가 선인세 등 화제를 몰고 왔다.

2008년 11월 4일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의 대통령이 된 오바마는 이번 책에서 한 청년이 정치에 입문하고 성장해가며 백악관에 입성하기까지의 과정과 극적인 전환과 혼돈의 시기였던 대통령 임기 첫 4년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사실적으로 담아냈다.

책은 92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당초 500페이지 분량으로 1년 정도 집필 기간을 예상했던 그는 단선적 메시지로는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어렵고, 재임 기간 중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내린 술한 '결정'에 관해 맥락까지 들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2권으로 책을 구성했고, 3년만에 첫 권 '약속의 땅'을 탈고했다.

그가 구상한 책의 열개는 재임중에 일어난 굵직한 사건과 교류한 주요인물을 기록하고 행정부가 맞닥뜨린 과제와 그에 대응해 자신과 팀이 내린 선택에 영향을 미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흐름까지 설명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모든 권력과 위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행정부 역시 '좌절하고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 등을 통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해 독자들이 감을 잡게 해주고 싶다는 점이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고자 했고, 내가 물려받은 뒤섞인 혈통의 여러 가닥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려 했다.

책은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을 잇는 1분간의 산책길에서 시작해 하와이와 인도네시아에서 자란 유년기, 정치 초년기 시절, 풀뿌리 운동의 힘을 생생하게 담아낸 선거운동과 대선 승리, '오바마 케어', 빈 라덴을 제거한 '넵툰의 창' 작전, 푸틴과의 줄다리기 등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겪은 술한 결단의 순간들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며 내면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들려준다.

한편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약속의 땅' 한국어판 출간을 기념해 국내 최초로 6일 tvN '월간 커넥트'에 출연해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웅진지식하우스·3만3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 매매대상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곤충사육장 + 태양광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하시고 전화주세요!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